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의료·경찰·소방과 코로나 백신 접종 협력

전주시,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회의

백신 접종은 정부 계획 따라 이달 말부터 시작
화산체육관·위탁 의료기관 지정 병원서 이뤄져

전주시가 이달 말 시작되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16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난이 전주시의 회 복지환경위원장, 완산·덕진 경찰서장과 소방서장, 병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역사회협의체에는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지인병원 ▲전주병원 ▲전라북도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협회전북도회 ▲전주시의사회 ▲전북대학교 ▲완산경찰서 ▲덕진경찰서 ▲완산소방서 ▲덕진소방서 ▲전주시설관리공단 ▲전주시자원봉사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차질 없는 사전 준비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이

공유됐다.

시는 그간 지역 의료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예방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접종센터 치안·교통 관리 및 백신 수송 경로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이송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시는 특히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백신 접종이 최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백신 접종은 정부가 전달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공급계획에 따라 이달 말 시작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병원의 의료진을 시작으로 1분기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원자와 종사자, 고위험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한다. 당초 1분기로 예정됐던 65세 이상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보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16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주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지역사회 협의체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시민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64세 성인, 4분기에는 미접종자와 2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접종이 이어진다. 11월 전까지 실시될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화산체육관을 포함한 2곳의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에서 이뤄진다.

김승수 시장은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대상자 및 백신 수급 관리부터 이상 반응 신속 대응,

콜센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가는 물론 시민 모두의 협력과 연대가 절실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문상 기자

코로나19 우울 극복 아이디어 도민에게 묻다

전북도, 심리지원 방안 마련 위한 공모전 열어
내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전북도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북도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방법은 전북소통대로 (https://policy.jb.go.kr)를 통하거나 우편 또는 전북도청 사회재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아이디어를 접수한 후 4월 초에 청원 설문과 심사위원회 심의 등 2단계에 걸친 심사 후 4월 말에 공모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금상 1명에게 30만원, 은상 2명에게 20만원씩, 동상 3명에게 10만원씩 총 6명에게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공모에 참가한 1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작 선정 심사는 아이디어 제안의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위배되거나 방역과 관계없는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김영원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가 극복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며, 코로나19로 특히, 더 어려운 소상공인, 취약계층분들의 우울감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도민들이 응모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면서 "뜻깊은 공모전이 되기를 바라며, 실행가능한 당선작은 즉시 실행해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작은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회재난과 사회재난예방팀 (063) 280-2698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고창 봉덕리 출토 '금동신발' 국가 보물 지정 예고

국내 최초 사례... 문화재청, 이달 지정 1차 가결 후 관보 게재
도, 마한역사문화권역에 전북지역 포함되도록 전방위 접근

문화재청이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을 보물로 지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마한·백제 역사중심지 가치구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국립중앙박물관은 고창 봉덕리 고분군 1호분에서 출토된 금동신발을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을 신청하면서, 그해 7월 전문가 등의 현지조사가 실시됐다.

이어, 문화재청은 올해 2월 문화재위원회에서 보물로 지정하는 것으로

1차 가결한 이후, 이달 말 관보에 게재해 30일 이상 지정예고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8년 고창 봉덕리 고분군에서 처음 화계에 보고된 이후, 고창군은 보존정비계획을 위해 2008~2009년에 4기의 고분 중 1호분에 대한 발굴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1호분의 규모는 동-서 63m, 남-북 52m, 최대높이 9.5m 내외로 형태는 동-서로 긴 장방형이며, 석실 5기의 매장시설이 확인됐다.

1호분 내에는 금동신발을 비롯해



봉덕리 고분군 1호분 출토 금동신발 (사진=고창군청 제공)

관모장식, 대도, 금동귀걸이, 철기 화살통, 마구류, 중국제 청자 등 당시 최고의 문물이 출토됐다.

이중 금동신발은 제작기법상이나 문양 등으로 볼 때 백제 한성기 최고 절정의 금속기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동신발 등이 출토된 봉덕리 1호분은 기존 마한 분구묘의 전봉이 유지된 것으로 보여진다.

봉덕리 1호분의 축조 중심세력은 전북 서남부 일원을 거점으로 성장한 마한 재지세력의 명맥이 이어져 온 집단으로, 고창지역의 최상위 계층이 피장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고분축조방식과 백제 중앙과의 관계 및 중국, 왜와의 대외교류를 포함한 국제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에 사적 제531호로 지정됐다.

전주·완주의 혁신도시 일원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는 마한의 시작을 알리는 초기철기시대 유적이 70개소

이상 분포하며, 고조선 준왕의 남천 기록 등을 통해 전북은 마한의 분항임이 밝혀졌다.

한편, 이러한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에 시행 예정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권 중 마한역사문화권역에 전북지역이 제외되고, 일부 지역으로 한정될 바 있다.

이에, 도는 문화재청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시 전북지역이 마한역사문화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학술연구 및 특별법 개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 발간한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소의 '전북지역 마한 문화', '전주 황방산 및 완주 갈동 유적일원 조사보고서', 전북연구원 '마한의 시작과 꽃을 피운 땅, 전북' 등을 잇달아 발간하며, 앞으로도 국립기관 및 학술단체와 협력해 마한 학술연구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